

Paju Editor School 2023

pajuhookcity

2023 파주 에디터스쿨 편집이라는 가능성 — 길을 내는 에디터

2023 파주 에디터스쿨

편집이라는 가능성 — 길을 내는 에디터

2023. 8. — 9.

주최: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Paju Editor School

The Possibilities of Editing — Editors Who Make

Their Own Way

2023. 8. — 9.

Hosted by Bookcity Culture Foundation

Sponsor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모두 안녕하세요.

출판도시에서 파주 에디터스쿨을 꾸리고 있는 연과
슬입니다.

파주 에디터스쿨은 2014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온
출판도시문화재단의 대표 행사입니다. 국내외 출판
전문가들의 강연과 네트워킹을 통해 변화하는 출판
환경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고, 독자를
탐구하고, 그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앞으로 출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 이 사업은 출판업 종사자, 특히
편집자를 위한 재교육이라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2023년으로 아홉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출판과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의 주제는 ‘편집이라는
가능성 — 길을 내는 에디터’였습니다. 꾸준하고
반복적인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당연시하는 여러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을
준비하면서, 이런 현실을 함부로 수용하지 않고
남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출판사의 구조나 운영 방법, 저자,
더 나아가 콘텐츠를 찾아 나서는 여정과 애정, 다양한
채널로 독자와의 접점을 계속 만들어 가는 노력,
물성으로 바라본 책의 무한함을 통해 편집이라는
가능성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며 지금에 멈추지 않는
활동을 기획하고 행동력 있게 추진하는 출판노동자가
어떻게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지, 11명의 강연자님과
282명의 수강생 여러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강연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참여하신 모든 분이
현장에서 서로 이어지고 우리 자신과 일을 위해
생각을 나누던 그 멋진 순간들이 못내 아쉬워
2023 파주 에디터스쿨에서 느낀 점을 우리 방식으로
묶어봤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저마다의 일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사랑하며
더 건강한 출판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Yeon and Seul, who have been
running Paju Editor School in Bookcity.

Paju Editor School is a representative event
held by the Bookcity Cultural Foundation every
year since 2014. This is a place where we can
understand changes of publishing environment,
discuss the future directions, and explore about
readers and share about various examples
through the lectures and networking program
by domestic and overseas publishing experts.

This project, which started with a question
‘what am I planning to do for publishing in the
future?’, was designed aiming for reeducating
people engaged in publishing industry,
especially editors. As we celebrate 2023 as our
ninth anniversary, we have been thinking about
sustainable publishing and various attempts for
it.

The theme of the 2023 Paju Editor School
was ‘The Possibilities of Editing — Editors Who
Make Their Own Way’. Spending consistent and
repetitive time, we face several situations which
we have taken for granted. As we prepare for
the 2023 Paju Editor School, we were curious
about the stories from those who show actions
different from others instead of careless
acceptance. We have created a place where
11 speakers and 282 participants collectively
contemplate and propose how publishing
workers can dream freely and create their own
ways in ‘The Possibility of Editing,’ through
exploring the structure and operational methods
of publishing companies, authors, the journey
and passion in seeking content, ongoing efforts
to have contact points with readers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perceiving the infinite
nature of books in a material property, while
planning and actively driving diverse activities
that do not stop at the present.

Since we missed about the wonderful
moments when everyone participating in each
lecture were connected with each other on-site
and shared thoughts for themselves and their
works, we’ve captured our impressions of the
2023 Paju Editor School in our own way. Please
enjoy reading our rough but heartfelt stories.

We support everyone who keeps living in
and loving our works and creates a better
publishing.



기획위원장 총평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올해는 ‘편집이라는 가능성 — 길을 내는 에디터’를 주제로 파주 에디터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급변하는 출판 환경에서 출판 에디터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에 주목한 기획이다. 이를 위해 주제에 부합하는 적절한 강연자들을 모시고자 했고, 의욕적으로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두 분의 해외 연사를 초청했다. 강연 직후 ‘애프터’ 프로그램으로 연사와 수강자가 격의 없이 만나는 네트워킹 시간을 신설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행사와 강연 영상의 ‘다시 보기’ 제공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과 목마름이 크다. 어느덧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파주 에디터스쿨’에 더 많은 출판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새로운 발상의 접근법과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디터를 비롯해 출판계에 종사하는 각 분야의 현업인들이 활발히 소통하고 성장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함께 만드는 컨벤션 행사’로 발전했으면 한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전국의 출판 에디터, 마케터, 디자이너, 관계자들이 파주출판도시에 함께 모여 관심사를 나누고 좋은 기운을 충전하는 공유·연대·희망의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한다.



OVERALL REVIEW
FROM PLANNING COMMITTEE
WON-KEUN BAEK
REPRESENTATIVE OF BOOK & SOCIETY RESEARCH INSTITUTION

This year, the Paju Editor School program was held with a theme titled ‘The Possibilities of Editing — Editors Who Make Their Own Way’. This is a project focusing on the sustainability and expandability of publishing editors in the rapidly-changing publishing environment. For this, we tried to invite lecturers appropriate for this theme, and we enthusiastically invited two overseas speakers, one from Japan and the other one from Italy. Right after the lectures, there was an ‘After Program’, the networking time during which lecturers and students openly meet together, and it could get positive responses. By providing ‘replay services’ for the event and lecture videos that were held both online and offline, we tried to access closer to more people.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regrets and needs. This is a time when ‘Paju Editor School’,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a brand, needs a new approach and exploration of ideas so that more people involved in the publishing industry can participate and empathize with. In order to establish itself as a place where editors and workers in various fields currently working in the publishing industry can actively communicate and grow, we hope this will develop into a “convention event created together.” At least once a year, I hope to create a platform of sharing, bonding, and hope where publication editors, marketers, designers, and publishing work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can gather together at Paju Publishing City to share their interests and recharge their good energy.

기획위원 총평
이옥란
출판 커뮤니티 올차캠프 대표

출판산업이 격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뉴미디어의 기세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흔들고 바꾸어가고 있으니 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또한 대항하기 어려운 시대적 변화입니다. 현장에서 책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은 어떡하든 ‘오늘의 출판’을 움켜쥔 한편으로 새로운 길을 내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책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듦, 종이 등 원자재값은 높아지고, 읽는 패턴이 변화하면서 신간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간 생산라인은 더욱 바빠져 원고 개발과 홍보 등 업무 하중이 높아지고, 급격해진 다른 산업분야로의 인재 이탈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때에 올해 파주 에디터스쿨은 ‘편집이라는 가능성 — 길을 내는 에디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너무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불확정성이 디폴트가 되었습니다. 확고한 해답이란 부질없는 것이지요. 그저 앞길이 컴컴할 때도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며 ‘지금’을 해내는 분들, 길을 내는 분들 자신이야말로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편집이라는 가능성’ ‘출판의 오늘’이란 바로 거기, 일하는 사람들 안에 있을 테고요.

김경태 대표님, 양선화 과장님, 윤세미 팀장님, 김보희 대표님, 이로 UE 운영자님, 사공영 편집장님, 유지원 소장님, 민찬기 대표님 등 여덟 분의 주제강연 연사님들과, 온라인 독서모임 플랫폼 운영자이신 장강명 작가님,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는 일본 미시마샤의 미시마 쿠니히로 대표님과 이탈리아 코라이니 에디지오니의 피에트로 코라이니 디자이너님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래 간직할 깊은 인상을 얻었습니다. 무엇이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만이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었든 것이지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랄지요. 2023년 가을, 파주 에디터스쿨에서 우리는 꺾이지 않는 출판의 마음을 발견한 듯합니다.



OVERALL REVIEW
FROM PLANNING COMMITTEE
ONG-NAHN YI
REPRESENTATIVE INSTRUCTOR OF OOLCHA CAMP

The publishing industry is going through a rapidly changing period. The relentless momentum of AI-infused new media is constantly shaking the overall societal paradigm, bringing about changes, making it a challenging era to confront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ed by books. People who make and sell books in the field faced a situation where they had no choice but to create a new way while seizing ‘Today’s Publishing’ no matter what it becomes. The number of readers is decreasing, the cost of raw materials such as paper is increasing, and reading patterns are changing, so the lifespan of new books is getting shorter. As a result, the production line of new books is becoming busier, the workload such as manuscript development and promotion is increasing, and it is not enough to stop the rapid outflow of talented people to other industries.

In times like this, the Paju Editor School program was held this year with a theme titled ‘The Possibilities of Editing — Editors Who Make Their Own Way’. When facing hard times, there is a need to look back to the basics.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re was some room to look at it too far or too deeply. The uncertainty already became the default in the world. A firm answer became useless. I think that the only solution is those who still go forward even if the ways in front of them are dark and make it ‘now’, and those who create their own ways. ‘The possibility of Editing’ and ‘Publishing Today’ are in the people who work there.

Eight topic lecturers including Kyoung-tae Kim, Sun-hwa Yang, Se-mi Yoon, Bo-hee Kim, Iro, Young Sagong, Ji-won Yu, and Chan-ki Min, as well as Kang-myung Chang, the operator of the online reading club platform, Kunihiro Mishima, CEO of Mishimasha in Japan, who continues to try new things, and designer Pietro Corraini of Corraini Edizioni in Italy gave us deep and long-lasting impressions. Whatever i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spond to the change is only to do things we can do in the place where we are now. It can be said that the important thing is an ‘indomitable mindset’. In the fall of 2023, we think we found the ‘indomitable mindset for publishing’ at Paju Editor School.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기획위원으로서 그리고 강연자로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그 소감이 궁금합니다.

출판 편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편집자가
고민하고 애쓰며 보낸 시간은 가끔 사무실 안에서만
눈에 띄는 것, 다른 사람의 눈에 고스란히 비칠 일이 잘
없어요. 책에 드러나기도 하고 작가가 보는 교정지에
담기기도 하지만, 그건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동을 해마다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에디터스쿨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두 담당자님이
도서전은 물론이고 전국 여기저기에서 열리는
책 잔치를 다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출판 관련 기사,
출판사 뉴스레터도 꼼꼼히 살피시고요. 해마다 신선한
발표자들을 이렇게 찾으시는구나, 알게 되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섭외 과정에서 발표자로 거론된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진정성 어린 메일을 보내는 일, 그러니까
당신의 일과 생각에 관해 이야기해달라고 제안하는
과정이 참 좋았어요. 당신의 노동이 왜 좋은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설명해야 했거든요. 동료의 일에 이렇게
구체적인 지지를 보내본 적이 없어요. 발표자분들
생각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또는
후배에게서 세심한 응원을 받았다고요.

2023 파주 에디터스쿨 주제가 ‘편집이라는 가능성
— 길을 내는 에디터’였어요. 많은 고민과 의논을
거쳤던 지난날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주제들 중 이번 주제에 유독
애착이 갑니다. ‘편집이라는 가능성 — 길을 내는
에디터’라는 주제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길 바라셨나요?

저는 새로운 일을 재미나게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가장 방해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무언가에 관해 잘 모르거나 경험해본 사람이 많지
않아서 믿을 만한 가이드가 없는 상황은 그 일 앞에
놓인 사람을 두렵게 하잖아요. 신간을 기획할 때도
‘요즘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를 먼저
떠올려요. 그런 다음 그 두려운 요소를 나름대로 견어낸
경험이 있는 사람, 두려운 요소를 안고도 잘 살고 있는

INTERVIEW WITH PLANNING COMMITTEE YOUNG SAKONG EDITOR-IN-CHIEF OF UU PRESS

The 2023 Paju Editor School ended
successfully. You participated in this as a
planning committee member and a lecturer,
and we are wondering about your impressions.

Many people say that ‘publishing and editing’
is the labor that is not apparent when looking
at it from the outside. I feel that the editor’s
concerns and time spent striving hard can be
sometimes visible only in the office, but other
people hardly see these. Sometimes it may
be revealed in books, or it may be included in
the proof sheet seen by the author, but it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who is watching it.
However, I realized some people pay attention
to such labor every year. Two people in
charge of planning and promoting the Editor
School visited not only book fairs but also
book festivals held here and there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they carefully looked into
articles about publishing and newsletters from
publishing companies. I was surprised and
grateful to see the way new presenters are
discovered every year.

What I liked was the process of sending
emails to people mentioned as presenters in the
process of inviting them to talk about their work
and thoughts with sincerity. I had to explain why
I like that work and how valuable it is. I’ve never
given such specific support to the work of my
colleagues. Probably, the presenters may have
similar thoughts. They probably think that they
received careful support from colleagues or
juniors who did the same work.

The theme of the 2023 Paju Editor School
was ‘The Possibilities of Editing — Editors
Who Make Their Own Way’. We are reminded
of the past days when we had lots of concerns
and discussions. So, personally, for me, I have
more affection for this theme than any other
theme so far. What kind of stories and people
did you want to tell and show through the
theme?

I think fear is the emotion that most hinders
people who want to try new things and have
fun. If you don’t know much about something,
or if you don’t have a lot of experienced people
and you don’t have a reliable guide, it can scare
you who comes up with it. When planning a
new book, “What are the elements that make
us most afraid these days?” And t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사람의 이야기를 눈여겨봐요. 책으로 엮일 만큼 가치
있으면, 그 이야기는 공유되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하고
망설이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위로와 확신과 기대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요.

편집은 재미있는 일이지만 가끔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잘 만들면 잘 팔릴까? 너무 어려우면 어찌지? 이런
마음이 들 때요. 그때 “제가 이렇게도 해봤는데요” 하고
자기 경험을 선뜻 나눠주는 선배만 있어도 조금 마음이
놓여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겁내지 말고요” 하는
말까지 들으면 망설이기보다는 기대 속에 일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하던 대로 해온 사람들보다는
회사나 업계의 관행이 가르쳐준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새로운 ‘길’이 더 많이 나고 공유될수록 우리가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의 방식이 늘어날 테니까요.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면서 일하는 날이 더 많아질
거고요. 이렇게, 자기 일을 꾸준히 하면서 일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들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들을 찾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강연 내용이나 현장 분위기 등 기억에 남는 점이
있나요?

강연 이후에 이어진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에디터스쿨이 아니었다면 만나기 어려웠을
동료, 독자들과 인연이 생겼어요. 강연이나 발표는
주로 준비한 사람 혼자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이지만,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도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예컨대 참가자 한 명(편집자)이 강연자에게 SNS
계정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업계 온라인 마케터가
해답을 찾아줬어요. 그 마케터는 평소 책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이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역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참가자에게서 얻었고요.
행사 이후에도 그날 만난 분들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올해 에디터스쿨을 통해서 얻은 가장 고마운
수확이라고 생각해요.

파주 에디터스쿨이 2024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말이죠,
참 다정해요. 부지런히 걸어온 지난날에 수고했다는
말을 보내는 동시에, 앞으로 더 열심히 걸어갈 길을
꽤 근사하게 상상해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진행될

After that, I pay attention to the stories of
people who have had the experience of solving
the elements that make them afraid in their
own way, and people who are living well with
the fearful elements. If something is valuable
enough to be made into a book, I think that
sharing the story can reassure anxious and
hesitating people, and give them comfort,
confidence, and expectations.

Editing is very interesting work for me,
but I am sometimes afraid of it. Can I really do
it? Can I really do it well? If it is well-made, will
it be sold well? What if it is too difficult? There
are times when I feel this way. At such times,
I feel a little relieved when there are seniors
who say, “I’ve done it this way,” and readily
share their experiences. When they say, “Don’t
be scared, it’s not as hard as you think,” I can
start my work with anticipation rather than
hesitation.

So, I think we need more stories from people
who have gone a different way rather than
stories about the way the company or the
industry’s practices taught them or stories from
people who just did what they learned or did as
they were used to. The more these new “ways”
are created and shared, the more ways we are
willing to choose to work. There will be more
days of working with anticipation than days
of fear. In this way, I wanted to find and show
people who know that continuing their work
and sharing stories about it can help colleagues
who do similar work.

Is there something memorable for you,
such as the content of the lecture or the
atmosphere on the site?

As I participated in the networking program
that followed the lecture, I connected with
colleagues and readers whom I would not have
met if it were not for Editor School. Lectures
and presentations are mostly about people who
have prepared to tell their stories alone, but in
the case of networking programs, participants
were also free to share their own stories. So it
was much better.

For example, one participant (editor) told
the speaker about the difficulties of managing
a social media account and asked some
questions and an online marketer from another
industry who was there answered these
questions. The marketer was curious about
the concerns that people who usually make
books have, and he got answers from other
participants who attended the event. Even after
the event, I still keep in touch with those who
I met that day. I think they are the most grateful
thing I gained this year from the Editor School.

파주 에디터스쿨에 보내는 응원과 기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내년엔 딱 10년 차가 돼요. 에디터스쿨은 저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시작한 시기가 같았네요. 돌이켜보면, 3년 차까지는 편집이라는 일은 재미있지만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일을 재미있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있는 일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조심스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편집자 저자의 책을 몇 권 만들게 됐고, 그 과정에서 편집자의 일 이야기가 다른 편집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디터스쿨에서 열리는 강연과 발표를 더욱 눈여겨봐온 듯해요. 성장하고 싶은 편집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대체로 편집자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지금도 일은 여전히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고 갈수록 더 재미있어지리라고 믿어요. 편집자로 일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도 늘더라고요. 아마 내년, 후년의 에디터스쿨도 그러리라 생각해요.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하는 일도 더 많을 테고 올해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재미있을 거라고요. 성장하고 싶어 하는 편집자들에게 의미 있는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자리가 되리라 믿어요.



In 2024, the Paju Editor School will celebrate its 10th anniversary. As you see number ‘10’, it is such a sweet number. This is because this number tells us that we have worked hard for the past day, and at the same time, it allows us to imagine a pretty good way to walk harder in the future. So please share your support and expectations for the upcoming Paju Editor School in the future!

Next year will be exactly 10 years for me, too. I guessed the Editor School started much earlier than my start, but now I see we started around the same time. When I look back to the past, the editing work was so interesting for me, but I thought I could not enjoy the work that much because I was not skilled enough. I was also cautious about talking specifically about the work I was doing.

However, as it turned out, I was able to make several books of the editor and author, and in the process, I learned how much the story of the editor’s work helps other editors. So this is how I came to pay more attention to lectures and presentations held at the Editor School. Because I’ve come to think that editors usually have the most helpful stories for editors who want to grow.

Working is still hard for me now, but I have fun from it, and I believe it will give me more fun as time goes on. The longer I worked as an editor, the more things I wanted to do, I could do, I had to do. I think the Editor School next year and two years later from now will probably be the same. There will be more things you can do, and more things you need to do, and it may be more difficult than this year, but it will also be fun. I believe that this will be a place where editors who want to grow can have meaningful thoughts.

기획위원 인터뷰
성기병
다산북스 사업1팀 편집자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편집자님은 작년에 강연자로 참여하셨는데, 올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기획위원으로서 함께하며 작년과는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듯합니다. 그 소감이 궁금합니다.

파주 에디터스쿨(이하 PES)을 처음 경험한 때는 백수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발견한 어느 웹자보를 보고 충동적으로 오프라인 참여를 신청했었죠.

쟁쟁한 베스트셀러를 기획하고 편집한 선배 편집자들의 분야별 트렌드 전망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만 빼고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조금 볼품없는 생각도 했습니다(사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질투와 존경 사이의 묘한 감정을 품고서 집으로 돌아가며 ‘나도 더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PES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다니... 무척 즐거웠습니다. 청중으로, 발표자로 참여했던 PES는 제게 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자극제였기에, 다른 편집자 동료들도 저처럼 고민거리와 영감을 하나라도 더 얻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2023 파주 에디터스쿨 주제가 ‘편집이라는 가능성 — 길을 내는 에디터’였어요. 많은 고민과 의논을 거쳤던 지난날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주제들 중 이번 주제에 유독 애착이 갑니다. ‘편집이라는 가능성 — 길을 내는 에디터’라는 주제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셨나요?

PES는 벌써 여러 회차가 지났잖아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역대 PES의 주제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이라든가 마케팅·독자·비즈니스 등 딱 떨어지는 여러 키워드는 이미 앞선 학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주제들과 겹치지 않으면서 실무자들에게 선명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런 제약을 극복하려는 무의식 속에서 ‘길을 내는 에디터’라는 조금은 관념적인 주제가 나온

INTERVIEW WITH
PLANNING COMMITTEE
KI-BYUNG SUNG
EDITOR OF BUSINESS TEAM 1,
DASAN BOOKS CO., LTD

The 2023 Paju Editor School ended successfully. You participated as a lecturer last year, but you participated in the entire process from start to finish as a planning committee member this year, so we guess you had a different feeling. We are wondering about your impressions.

When I experienced the Paju Editor School (PES) for the first time, I was unemployed. At that time, I had quit my job and was living at home reading my family’s mind, and when I happened to find its website, and impulsively signed up to participate offline.

As I listened to the forecasts of trends in each field from my senior editors who planned and edited competitive bestsellers, I was envious of them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I also had somewhat poor thought that everyone was working hard except for me. (Actually, I can’t remember the details much.)

I had a strange feeling between jealousy and respect, and I went home and thought, “I want to work harder on this too.” But now I participated in PES as a planning committee member... It was so enjoyable for me. PES, in which I participated as an audience member and presenter, was a stimulant that reminded me that “there are so many colleagues who work so hard.” Therefore, I worked with the hope that other editors and colleagues would get at least one more concern and inspiration similar to mine.

The theme of the 2023 Paju Editor School was ‘The Possibilities of Editing — Editors Who Make Their Own Way’. We are reminded of the past days when we had lots of concerns and discussions. So, personally, for me, I have more affection for this theme than any other theme so far. What kind of stories and people did you want to tell and show through the theme?

Several rounds of PES have already passed, right? I am not sure if it was just me, but I had an obsession that this theme should not be overlapped with themes of the past PES. Since several keywords had already been covered in previous semesters that were exactly applicable, such as planning or marketing, readers, business, etc., I thought that I needed to find keywords that could give clear insights to practitioners without overlapping with these

듯해요. 우리가 하는 일의 조건과 방법론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진 않겠지만,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출판·기획·편집·디자인·홍보·마케팅의 방식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변해야 한다면 외부의 자극에 못 이겨 억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생산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문제 해결을 향해 질주하는 이런저런 시행착오 속에서 에디터스쿨 참여자들이 자기만의 길을 낼 동력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강연 내용이나 현장 분위기 등 기억에 남는 점이 있나요?

“회사가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회사라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첫 수업을 열어준 도서출판 클 김경태 대표의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특히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기획, 출간한 뒤 출판사 대표로서 오히려 행복과 멀어졌다는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경력이 조금 쌓인 편집자라면 한 번쯤은 ‘독립’을 생각해봤을 거예요. 베스트셀러를 기획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뒤이어 여러 권의 책을 여유롭게 출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많은 편집자들의 로망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도서출판 클이 겪은 지난 몇 년의 시행착오를 들으며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일의 형태’는 무엇인지, 어떤 일의 형태가 ‘행복’과 가장 가까운지 상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창업을 꿈꾸거나 독립을 준비하는 동료 출판인들을 모아 “나는 왜 (굳이) 회사를 떠나 ‘혼자’ 또는 ‘내 회사에서’ 책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기억에 남는 광경은, 마지막 특별강연 연사인 미시마샤 출판사의 미시마 쿠니히로 대표가 아이 같은 표정으로 화이트보드에 화산 모양을 그리며 “재미란 마그마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동료 편집자들의 일에 대한 고민을 질문하는 뉴스레터 <프즈즈>를 발행하고(지금은 잠시 쉬고 계시지요.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약속고대합니다) ‘FC 북위커스’ 풋살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데, 편집자님의 이런 다양한 활동이 편집자의 일과 관계를 더욱 입체적으로

topics.

Probably, ‘The editors who create a way’, which is a little bit conceptual theme, emerged from the unconsciousness of trying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e conditions and methodologies for the work we do will not change within a day, but no one working in this industry thinks that the current method of publishing, planning, editing, design, publicity, and marketing will last forever. For this reason, I thought that if there was to be a change, it would be more productive to find clues for change and solve the problem first, rather than forcing it through external stimulation. So I found people in each field who were solving problems in their own way, and I hoped that the Editor School participants would be motivated to create their way through trial and error in trying to solve problems.

Is there something memorable for you, such as the content of the lecture or the atmosphere on the site?

“I hope that the company can be a natural part of employees’ daily lives. And I hope they don’t give up on life in the company.” I think the story told by Kyoung-tae Kim, CEO of KL, publishing company, who opened the first lecture, will stay in my memory for a long time. In particular, it was so interesting for me to hear that he became distant from his happiness as the CEO of his publishing company after planning and publishing a mega-scale bestseller.

If you are an editor with some experience, you may have thought about ‘independence’ at least once. There are probably many editors who dream of securing enough money to publish multiple books even after planning a best seller and getting back all of their investment funds. However, it seems that I have never thought about the ‘Next thing’, which will come after publishing such a book.

By listening to the trial and error that publishing company KL has experienced over the past few years, I was able to imagine what the ideal “form of work” I want and what kind of work can be said to be closest to “happiness.” I also would like to hold a meeting and gather a group of fellow publishers who dreamed of starting their own business or were preparing for their independence and then ask, “Why do you want to leave the company and make a book ‘on your own’ or ‘in your own company’?”.

If there was a memorable thing for me, it was the lecturer at the last special lecture, Kunihiro Mishima, CEO of Mishimasha, drawing a volcano shape on a whiteboard with a

펼쳐나가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연결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 마음보다 단 1퍼센트라도 더 많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늘 호기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게 맞을까?’ ‘다른 편집자들은 어떻게 일할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일할까?’ ‘남들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낄까?’ 좋게 말하면 더 나아지려는 항상심일 수 있고,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면 답답함과 외로움에서 비롯한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회사를 다니며 다른 편집자들과 작당해 독립출판물을 만들고, 최근에는 혼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풋살 모임을 시작한 출발점은 모두 이런 반신반의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을 더 잘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 다른 사람들의 일과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앞만 보며 일을 해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어디에 연결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면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가, 커뮤니티가, 모임이, 편집자 개인의 일과 삶을 극적으로 개선하거나 나아가 이곳의 문화를 바꾸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일이 더 구체적으로 더 빈번하게 교류될수록,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편집자가 언제나 고개를 들어 숨을 쉴 수 있는 자신만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파주 에디터스쿨이 2024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말이지요, 참 다정해요. 부지런히 걸어온 지난날에 수고했다는 말을 보내는 동시에, 앞으로 더 열심히 걸어갈 길을 꽤 근사하게 상상해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진행될 파주 에디터스쿨에 보내는 응원과 기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처음 기획위원 미팅에 참여했을 때는 ‘뭔가 사고 한번 쳐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을 만큼 의욕이 넘쳤습니다. 청중으로도, 발표자로도, 기획위원으로도 참여해보며 이렇게나 뜻깊은 행사에 더 많은 편집자와 출판인이 와서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자극을 얻어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한 것보다 참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게 속상하고 아쉬웠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모객 측면에서만 보면 분명 미진한 점이 있었겠지만, 저는 수치만으로는

childlike expression and saying, “Fun is like magma!” His such image touched my mind.

As you publish a newsletter called ‘Puzuzu’ that questions the concerns of fellow editors about work (currently taking a break, but hoping to resume someday), and you run a futsal group named ‘FC BOOKWORKERS’, I believe that these diverse activities of yours contribute to expanding the depth of editors’ work relationships. What kind of relationship can we make through connection with books in the future?

If a person loves the task in front of him or her by even 1% more than the degree of not loving the task, I think he or she is always curious. ‘Is it right to work like this?’ ‘How do other editors work?’ ‘How can I enjoy the work more?’ ‘Do others also have the same feeling as me?’ Looking at it positively, it can be seen as a desire to improve. To put it in a slightly cynical way, it might be a “shouting” that comes from frustration and loneliness.

At the starting point where I tried creating independent publications with other editors at the second company, and recently started publishing newsletters alone and started a futsal group, I had a feeling of hesitation and uncertainty about all of them. The “belief” that if I work better, my life will be better, and the “doubt” that no matter how good I am at my job, my life will not get better. I was afraid to look ahead without looking into other people’s work and lives. Perhaps, the stronger the desire to be connected, the more anxious and precarious it may be inside.

Actually, there is no expectation that these relationships, communities, and gatherings will dramatically improve the personal works and lives of editors, and even change the culture here. However, I think that the more concrete and frequent our work becomes, the more opportunities we will have to see where we stand and decide the direction, we want to go by ourselves. I want every editor to be able to build their relationships where they can lift their heads and breathe at any time.

In 2024, the Paju Editor School will celebrate its 10th anniversary. As you see number ‘10’, it is such a sweet number. This is because this number tells us that we have worked hard for the past day, and at the same time, it allows us to imagine a pretty good way to walk harder in the future. So please share your support and expectations for the upcoming Paju Editor School in the future!

In fact, when I first attended a meeting with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는 업계에서 일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1년마다 무언가를 한다’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결국 ‘이런 마음들이 꾸준히 모여서 어디엔가 쌓여 간직된다’라는 감각. 행사장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이 모이고, 매년 엄청난 화제거리가 쏟아지고... 그런 떠들썩한 행사가 된다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과 같은 PES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방문객이 한 명도 없어 허전한 행사장이 될지라도, 홀로 고민하는 편집자가 골방 문을 열고 나와 도착할 곳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절반은 성공한 셈이니깐요.

the planning committee members, I was so motivated to the extent that I thought “Let’s do something big!”. While participating as an audience, as a presenter, and as a planning committee member, I thought it would be great if more editors and publishers who came to such a significant event could share their concerns and get inspired by them.

To be honest, there wasn’t as much participation as expected. That was upsetting and I was disappointed at it, but as I am thinking about it again, it is not necessarily true. When looking at it in terms of gathering people, there must be some shortcomings, but I think there is something unmeasurable by using only numbers.

‘People who contemplate work in my industry gather, doing something annually’, ‘If I decide to do it, I can attend those gatherings, share conversations with them’, and ultimately, there’s a sense that ‘these sentiments consistently accumulate somewhere and are cherished’. I hope this event becomes a bustling gathering, filling the venue with people, and that it generates remarkable hot topics every year, but I also think that the current PES, as it is, isn’t bad. Even if it turns out to be an empty venue for the event where not even a single visitor comes, it still means that it can be a place at which an editor who is concerned alone opens his door to come out and arrive, and we can see it as already half the battle.



강연자 인터뷰 김경태 (주)출판사 를 대표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강연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일 이야기를 두루 살피주셨어요. 파주 에디터스쿨과 함께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희 출판사는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 있어서, 매일 저희 책에만 신경 쓰느라면 회사 밖 출판계 사정에는 관심이 덜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일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출판이라는 것, 회사라는 것, 우리의 일과 삶이라는 것을 아주 오랜만에 찬찬히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연한 날이 한여름이었는데, 파주까지 오셔서 열심히 진지하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직원들을 볼 때도 드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만들고 알리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제 발로 모이는 업계인데, 이들이 자기 몫의 보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책이 잘 팔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나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 귀감이 되는 길을 만든다고 강연을 해달라고 하다니...’ 강연 섭외 연락에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연을 선택 수락해주신 것은 어떤 다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싶으셨나요?

그동안 강연을 많이 하진 않았어도 주로 출판 편집 일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신선해서 선뜻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연일이 다가오니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편집이라는 일에도 어쨌든 ‘정석’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정답이 있을 수 없는 회사 운영방식에 대해 뭔가 말을 엮는다는 게 주제넘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겪고 고민했던 것만 이야기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직업인’이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출근인데 어떻게 하면 덜 싫게 만들 수 있을까, 일상적이면서 실존적인 그런 고민도 ‘직장인’으로서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 삶 속의 회사가 아닌 일상 그 자체의 회사를 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일과

INTERVIEW WITH LECTURER KYOUNG-TAE KIM CEO OF KL PUBLISHING INC.

The 2023 Paju Editor School ended successfully. You carefully looked into our work stories for a long time through the lecture and networking system. We are wondering about your impressions from your experience with Paju Editor School

Our publishing company is located in a residential area in Eunpyeong-gu, Seoul, so we are indeed less interested in the publishing industry outside of our company when we only care about our books. While preparing for this lecture, I think I had the opportunity to take a step away from everyday life and think carefully about publishing, the company, and our work and life after a very long time.

The day I gave the lecture was in the middle of summer, and I was very impressed by the people who visited Paju and participated with a diligent and earnest attitude. When I looked at our employees, I thought how great it would be if books sold well enough for them to truly feel rewarded for their work in an industry where people who love books and are passionate about creating and promoting books gathered.

‘I was just working, but I was asked to give a lecture for creating a way which can be a good example for someone...’ You might have felt burdened by the invitation contact to be a lecturer. Nevertheless, you willingly accepted to give a lecture, and it seems that you had some resolution for it, what concerns and thoughts did you want to share?

I have not given many lectures in the past, but I was sometimes asked to tell stories about general publishing and editing. And the topic was fresh for me this time, so I willingly accepted it. But as the lecture day was upcoming, the pressure about it was increasing. In the field of editing, there are ‘standards,’ but I thought that commenting on the operational methods of a company where there may not be a definitive answer may be considered impertinent.

So I made up my mind to say, “Let’s just talk about the stories I’ve experienced and thought about.” Becoming a more competent and competitive ‘professional’ is undoubtedly important, but I thought that if they have to go to work anyway, it would be also good to contemplate how to make it less unpleasant for working professionals as a daily but existential

회사의 자연스러운 삶을 위한 대표님의 노력과 경험을 들려주셨고요. 이러한 삶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지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참 많지만, 지금 이 질문에는 갑자기 떠오르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세대주택 방 한 칸에서 회사를 창업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진짜 회사이고 내가 진짜 사장인가, 실감조차 나지 않을 때였지만 회사를 키우겠다는 생각에 편집자를 덜컥 뽑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종이 건강보험증이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신입직원의 새 건강보험증에는 피부양자로 가족분들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는 손바닥만 한 회사였지만, 내가 만든 건 결국 어느 누구의 직장이었습니다.

저마다 무언가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면서 생계를 꾸리는 곳. 그러기 위해 가족의 격려 속에 출근하는 곳. 아, ‘장난’이 아니구나. 그 건강보험증을 보자마자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얼하게 절감한 것은 어떤 ‘엄연함’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상하고 서늘한 그 기분이 느껴집니다.

출판 편집자가 되고 나서 펴낸 첫 책이 있고, 출판사 클을 만들고 대표로서 펴낸 첫 책이 있지요. 대표님에게 이 두 첫 책은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편집자가 되고 나서 만든 첫 책은 사실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제가 처음으로 담당한 책은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터라 ‘나의 첫 책’으로 각인되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출판사를 창업하고 만든 첫 책은 애정을 많이 담았고 저 혼자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하나하나 거의 다 생각나지만요.

돌이켜보면, ‘첫 책’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어본 적이 없네요. 출판 편집자로 직업을 바꾸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출판사를 창업했을 때, 내 인생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구나, 하며 심기일전하려 했던 마음이 어렵듯이 기억에 남는 정도입니다.

제가 편집자로서, 출판사 대표로서 ‘마지막 책’도 언젠가 생기겠지만, 그게 무엇일지도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면 어떤 기분일지가 더 궁금해요.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의 키워드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서사가 담긴 단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 현재 서 있는 길 — 앞으로 걸어갈 길. 연속성과 지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요. 우리의 일과 관계도 비슷하구요. 대표님에게 길이란 어떤

concern.

In this lecture, we think you mainly talked about companies in daily life rather than companies in our lives. You talked about your efforts and experiences for the natural life in your work and the company. Is there the most memorable moment for you in such a life?

There are so many memorable moments, but I'd like to talk about a moment that suddenly comes to mind in response to this question. It had only been a few months since I started a company in one room of a multi-household house. Several times a day, I couldn't even believe that this was really my company and that I was really the CEO of this company, but I hired an editor with only mind to grow the company.

At that time, health insurance cards were sent by paper mail, and on the new employee's new health insurance card, the names of the new employee's family members were listed as the new employee's dependents. The moment I saw it, it was so strange for me. It was just a small company that looked like a children's play, but what I made was a workplace for someone else.

A place where everyone makes a living, making efforts to do something hard. A place where they come to work, being encouraged by their family. Ah, it was not like a joke, it was serious. When I saw that insurance card, it struck me and I felt as if I had been unexpectedly hit on the back of my head, similar to an 'undeniable feeling' hitting on me. Even now, when I think about that time, I feel a strange and chill feeling.

There is the first book you published after becoming a publishing editor, and the first book you published as the CEO of Publishing Company KL. What do these two first books mean to you?

I don't remember the first book I made after becoming an editor. The first book I was in charge of was one that I received a lot of help from my seniors, so I don't think it will be remembered as 'my first book.' Of course, the first book I created after founding the publishing company was filled with a lot of my affection towards it, and since I had to make the book by myself, I still remember almost every step of the process vividly.

When I look back, I have never put meaning to 'The First Book'. I vaguely remember the mind when I transitioned my career to become a publishing editor, registered as a business owner for my own publishing company, and

의미일까요?

너무 추상적인 주제여서, 요즘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 가사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노래 가사를 한 자 한 자 글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하숙생〉이라는 노래인데, 혹시 들어보시려면 되도록 최희준 님의 원곡으로 들어보세요. 2절 가사도 찾아보시고요.

thought that ‘a new phase of my life had commenced’ with a determination to face it head-on.

As an editor and as a CEO of a publishing company, there might be a ‘final book’ someday, but I'm not particularly curious about what that might be. Rather, I am wondering how I will feel if I get off work for the last time.

The keyword of the 2023 Paju Editor School was ‘Way’. We think that a ‘way’ is just like a word that contains a narrative. The way we’ve come so far — The way we are currently on — The way we will go through. It has both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ur works and relationships are similar. What does a ‘Way’ mean to you?

This theme is too abstract, so I want to share the lyrics of a song I am humming in these days as an answer. When I read the lyrics of a song, letter by letter, I get a different feeling.

“Life is a way of a traveler, Coming from somewhere and going to somewhere. Let's not give affection or have lingering regrets about the way flowing by like clouds. Life is a way of a traveler, and it flows aimlessly just like clouds flowing by.”

This song is called “Boarder,” but if you want to listen to it, please try the original song by Hee-joon Choi if possible. Please also look for the lyrics of verse 2.



강연자 인터뷰
양선화
지학사 단행본팀 북트리거 과장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강연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일 이야기를 두루 살피주셨어요. 파주 에디터스쿨과 함께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파주 에디터스쿨이라는 행사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는 못했어요. 웬지 저하고는 거리가 먼, 규모가 크고 엄숙한 행사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연자로 참여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생각보다 근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신 분들 덕분에리라 짐작해요.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 귀감이 되는 길을 만든다고 강연을 해달라고 하다니...’ 강연 섭외 연락에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연을 선택 수락해주신 것은 어떤 다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싶으셨나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하하)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책을 작업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15년 가까이 책과 함께 걸어온 길에 스스로 자부심이 있어요. 전혀 올곧거나 평탄하지 않았던 이 길 덕에 오히려 책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거나 걷게 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괜찮다고, 앞으로도 스스로를 믿고 계속해보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연이 맺어지는 순간을 소중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파주 에디터스쿨 강연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 또는 이야기가 있나요? 물론 모든 분과 모든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시겠지만요!

강연 끝나고 현장 질문은 하나가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성함은 모르지만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책이 잘 팔리지 않고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나는 쓸모없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는 비법을 물으셨죠. 경력과 저와 비슷한 10년 이상이었구요.

“책 만드는 일을 사랑하시죠?” “자기 자신의 노동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죠?”라고 제가 되물었을 때 단박에 고개를 끄덕이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라고 답이 있을 리 없고, 그저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니라

INTERVIEW WITH LECTURER
SUN-HWA YANG
MANAGER OF BOOKTRIGGER,
JIHAKSA PUBLISHING CO. LTD

The 2023 Paju Editor School ended successfully. You carefully looked into our work stories for a long time through the lecture and networking system. We are wondering about your impressions from your experience with Paju Editor School.

Although I knew that there was an event titled ‘Paju Editor School’, I was not that interested in it. For some reason, it felt distant from me and it seemed like a large-scale yet solemn event. However, as I participated in this as a lecturer, I realized that it was not like that actually. It was a great and warmhearted time for me. I think it is all thanks to those who planned and organized this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Thank you for all your hard work.

‘I was just working, but I was asked to give a lecture for creating a way which can be a good example for someone...’ You might have felt burdened by the invitation contact to be a lecturer. Nevertheless, you willingly accepted to give a lecture, and it seems that you had some resolution for it, what concerns and thoughts did you want to share?

It was not burdensome for me. (Haha) I’m not a famous person, and I haven’t published a famous book, but I’m proud of the way I’ve been with books for almost 15 years. This way, which was not at all straight or smooth, made me love books even more. I think there may be many people who passed the way similar to my way and will pass the way soon. I wanted to tell them that it’s still okay and that they should continue to believe in themselves and keep trying.

I can feel that you cherish the moment when a relationship is formed. Are there any people or stories memorable for you while you carried out Paju Editor School lectures and networking programs? Of course, every story with each person must be memorable!

I remember one person who gave me a question after the lecture, and I don’t know his name, but he became the most memorable person for me. He asked me about the secret to achieving a “mental victory” for himself, even if the books don’t sell well and he experiences gaslighting just like “I’m not doing useless labor.” His career was similar to mine for over 10 years.



그냥 사실이다, 우리 노동은 가치가 있다,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었지만, 그분이 느끼는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회사나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만드는 책이 그저

‘내봤자 별로 안 팔리는 신간 1종’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분들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한테 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믿으시길!

강연 중에 “지나온 10년 동안 많은 순간을 겪었고, 어떠한 것도 내게 불필요한 경험은 없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어떤 경험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힘들었던 일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말이죠. 힘이 필요한 지금 이 순간에 무엇보다도 큰 힘을 주는 것은 지난 경험이라라고요. 오늘도 언젠가의 힘이 될 테고요! 언젠가의 힘이 될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침 7시 30분에 아슬아슬 출근해서 복잡한 결재 서류 하나부터 처리하고, 에이전시가 추천한 외서 타이틀을 팀원들과 나누어 검토하고, 새로운 국내서 기획안을 하나 쓰고, 또 새로운 책 교정 교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편집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트친’의 자소서를 미리 보고 코멘트를 해줬어요.

밤에는 ‘탈출판’한 친구네 집에 가서 1박으로 ‘호러 무비 나이트’를 즐길 예정입니다. 이런 오늘이 언젠가 제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기어코 해냈다, 살아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거니까요.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의 키워드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서사가 담긴 단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 현재 서 있는 길 — 앞으로 걸어갈 길. 연속성과 지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요. 우리의 일과 관계도 비슷하고요. 과장님에게 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길은 ‘내가 걷는 만큼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자에게 어떤 길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다가 깨끗해서 다른 데로 빠지면 그것도 나름대로 길이 되어 나중에 후배들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요.

“Do you love making books?” “You don’t think your labor is useless, do you?” I remember that when I asked him back, he nodded quickly. I didn’t have the answers, so I couldn’t help but tell him, “This isn’t a mental victory, it’s just a fact, our work is worth it, and you have to believe in yourself.”, but I could know well about the helplessness he felt. Because I was also like that. In the eyes of the company and the bosses, the books we publish may be just “one new book that doesn’t sell very well.” That’s just their opinion. That’s not what books are to us, are they? Trust that mind!

During your lecture, you said, “I’ve had many moments in the last 10 years, and none of them have been unnecessary to me.” There is no experience in vain. Even works and people that made us difficult are not in vain. At this moment when I need strength, what gives me more strength than anything else is my past experiences. Today will be also an energy for someday! How do you spend today, which will give you energy?

I managed to get to work at 7:30 this morning, processed a complex payment document, shared and reviewed foreign book titles recommended by the agency with my team members, wrote a planning report for a new domestic book, and corrected a new book. I also previewed the resume of a ‘Twitter friend’ who wanted to work in publishing and editing and gave a comment about it.

At night, I plan to go to a friend’s house who has ‘finished publishing’ and stay overnight to enjoy ‘horror movie night’. Today may become an energy for me someday, but it may not be. But it is still okay! Because I will tell myself that I made it through today, that I survived today.

The keyword of the 2023 Paju Editor School was ‘Way’. We think that a ‘way’ is just like a word that contains a narrative. The way we’ve come so far — The way we are currently on — The way we will go through. It has both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ur works and relationships are similar. What does a ‘Way’ mean to you?

I believe that a way becomes ‘wider as much as I am walking’. It doesn’t mean that the editor has a certain way, so he just has to walk along that way, but if the editor takes a wrong turn while walking and ends up in a different direction, that also can be a way in its own, so the juniors can choose more diverse ways later.

강연자 인터뷰
윤세미
다산북스 엔터테인먼트본부 IP제품팀 팀장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강연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일 이야기를 두루 살피주셨어요. 파주 에디터스쿨과 함께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파주 에디터스쿨은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항상 가까우면서도 먼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파주에 근무하는 출판 노동자들에게는 가까운 곳이지만 그만큼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반성합니다.) 파주 에디터스쿨은 출판노동자뿐만 아니라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장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 귀감이 되는 길을 만든다고 강연을 해달라고 하다니...’ 강연 섭외 연락에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연을 선택 수락해주신 것은 어떤 다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싶으셨나요?

저 또한 처음 출판계에 입문했을 때 바로 실무에 투입됐어요. 당연히 출판계 사정이나 업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 특별하진 않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는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니 어느 자리든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IP제품팀’이라는 팀명이 여전히 신선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출판계에서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실무적인 내용의 질문이 많이 오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IP제품팀의 역할과 하는 일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여러 사람의 손길과 눈길을 거치듯이, 저희가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다만 책뿐만 아니라 관련 굿즈와 패키지 구성, 홍보와 마케팅, 제작에까지 담당자가 아주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IP제품팀은 무언가를 깊고 다양하게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을 더욱 친숙하게 제안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재미난 일이 앞으로도 많이 펼쳐질 예정이니 꾸준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INTERVIEW WITH LECTURER
SE-MI YOON
TEAM LEADER, IP PRODUCT TEAM
OF THE ENTERTAINMENT DIVISION,
DASAN BOOKS CO., LTD

The 2023 Paju Editor School ended successfully. You carefully looked into our work stories for a long time through the lecture and networking system. We are wondering about your impressions from your experience with Paju Editor School.

I always felt that the Paju Editor School is close to those involved in publishing but also distant from them. It means that it is near to publishing workers working in Paju, but they do not realize its value. (I reflect on it.) I realized one more time that the Paju Editor School is a place open not only for publishing workers but also for everyone interested in books.

‘I was just working, but I was asked to give a lecture for creating a way which can be a good example for someone...’ You might have felt burdened by the invitation contact to be a lecturer. Nevertheless, you willingly accepted to give a lecture, and it seems that you had some resolution for it, what concerns and thoughts did you want to share?

When I entered the publishing industry for the first time, I was immediately assigned to the practical tasks. Of course, I didn’t know much about the situation in the publishing industry and the tasks at that time, so there have been times that I desperately needed help from others. Even though my experience was not very special, I thought it could be some help to someone, so I wanted to find any position.

The team named ‘Entertainment IP Product Team’ is still fresh and interesting. As the term was not commonly used in the publishing industry, there were many questions about practical content during the lecture. We would like to know a little more about the role and tasks of the Entertainment IP Product Team.

Just as a book goes through the hands and eyes of many people before it is published in the world, so does what we do. The only difference is that not only the book, but also the composition of related goods and packages, promotion and marketing, and production plans are deeply involved by the person in charge.

The IP product team works with the mindset of proposing another way to love something deeply and diversely in a more familiar way. It’s hard to explain, but many interesting things will unfold in the future, so I hope you keep



“책 만드는 일이 좋고, 이 일을 오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역할로 새로운 일을 향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팀장님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고요.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

기다려더라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 싶은 일이 있는지요.

저에게는 오래된 꿈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책을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을 만들고 싶다는 꿈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읽은 책 한 권 한 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세계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귀한 자양분이 될 만한 책을 언젠가는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있거든요.

아직은 한참 부족한 탓에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 어린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국가에서 돈 안 되는 일을 꿈꾼다고 어떤 이는 말하겠지만, 언젠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책을 만드는 게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의 소원입니다.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의 키워드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서사가 담긴 단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 현재 서 있는 길 — 앞으로 걸어갈 길. 연속성과 지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요. 우리의 일과 관계도 비슷하고요. 팀장님에게 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다녀야만 길이 완성되듯이, 길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간 발자취가 보이지 않거나 벽으로 막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다면 어디든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길이 되려면 한 번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고, 혼자만의 지름길로 삼아서도 안 되고, 꾸준히 여러 번 다녀가면서 주변을 정돈하고 가꾸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그 길로 가게끔 초대해야만 하겠지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watching.

I remember your words “I like making a book and I hope that I can do this work for a long time.” We thought it was cool that you were not afraid to take on new roles and new challenges.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try even if the process is going to be difficult?

I have an old dream. In the future, if I become a person who can make books very well, I have a dream to publish a book for children. Each book I read when I was a child made me who I am today, and I hope that one day I will make a book that will be a valuable nourishment for children, who will be the future of this world.

Some will tell me that it will take a long time because I am still not good enough, and that my dream can not make much money in this country where children are decreasing more and more, but it is my wish as a book publisher that one day I will publish a good book for children.

The keyword of the 2023 Paju Editor School was ‘Way’. We think that a ‘way’ is just like a word that contains a narrative. The way we’ve come so far — The way we are currently on — The way we will go through. It has both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ur works and relationships are similar. What does a ‘Way’ mean to you?

Just as a road is complete only when someone goes through it, I believe that a way is ultimately created by a human. Just because you can’t see the footsteps of those who have gone before you or if it’s blocked by a wall doesn’t mean it’s not the way. I believe that if a person has a will to go through, everywhere can be one way.

However, in order to create a way, you should not pass it just once, you should not take it as a shortcut only for yourself, but you should steadily go through the way several times, keep its surroundings tidy, and willingly invite other people into the way. There may be many trials and errors, objections, and twists and turns, but I always support those who try to create new ways. I am also one of them, so please support us a lot!

강연자 인터뷰 김보희 터틀넥프레스 대표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강연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일 이야기를 두루 살피주셨어요. 파주 에디터스쿨과
함께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회사 밖 동료와 독자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특히 네트워킹 프로그램에서 서로
경험을 공유한 시간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 귀감이 되는
길을 만든다고 강연을 해달라고 하더니...’ 강연 섭외
연락에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연을 선택 수락해주신 것은 어떤 다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싶으셨나요?

거창한 다짐이나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편집자
동료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는, 되도록 모두
수락하는 편입니다. 주제가 무엇이든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늘 같아요. “모든 경험은 먼지처럼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게 당연하니,
조금해하지 않아도 돼요”예요. 책을 만들면서 좌절하고
조금해하느라 힘들게 보낸 시기가 길었거든요. 재능도
없고 실력도 늘지 않는 듯해 괴로워하면서요.

그런데 먼지처럼 쌓이더라고요.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든든한 실력이 되어준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과거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의 그런 말 한마디로 괴로운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번쯤 떠올리며 잠시라도 자신을
다독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 강연은 성장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책을 만들어가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와 함께 성장하는
동시에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성장이 좋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운 순간이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책 만드는 일보다,
책보다, 우리 인생과 일상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런
순간이 많으면 편집자로서도 자연인으로서도 성장하지
않을까요.

INTERVIEW WITH LECTURER BO-HEE KIM CEO OF TURTLENECK PRESS

The 2023 Paju Editor School ended
successfully. You carefully looked into our
work stories for a long time through the
lecture and networking system. We are
wondering about your impressions from your
experience with Paju Editor School.

I was pleased to meet my colleagues and my
readers together outside the company in one
place. Especially, it was impressive for me to
have some time to share our experiences with
each other in a networking program.

‘I was just working, but I was asked to give a
lecture for creating a way which can be a good
example for someone...’ You might have felt
burdened by the invitation contact to be
a lecturer. Nevertheless, you willingly
accepted to give a lecture, and it seems that
you had some resolution for it, what concerns
and thoughts did you want to share?

There was not such a great resolution of
thoughts. I try to accept any position where I can
share my experience with my editorial colleagues.
Whatever the topic is, the story I want to share
is always the same. It is “Every experience
accumulates like dust. Naturally, it is invisible and
you can not feel it, so don’t rush too much.” There
was a long period of frustration and impatience
while working on the book. It seemed that I had
no talent and my skills were not improved,
so I was suffering.

But it piled up like dust. I wanted to tell you
that if you accumulate experience step by step,
it will eventually become a solid skill. These are
also the words I want to say to myself in the past.
Of course, the painful mind cannot be cured by
only my words, but I hope that you think of it at
least once and it can comfort you even for a short
moment.

This lecture was the time to rethink the
meaning of growth. Meanwhile, we came to
realize that not only the relationship with
the author but also the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who make books together was also
special. What is the important thing for you
in the process of growing together with the
author and at the same time with colleagues?

Growth is good, but I hope that there will
be more enjoyable moments in the process of
creation. Our lives and daily lives are way more
important than publishing a book or the book



내가 좋아하는 일 또는
하고 있는 일에 꾸준히
힘을 쏟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위입니다.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모두 쏟아붓는
일이니까요. 한순간에
불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저는

이 꾸준함이 거룩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흥미로워
보이던 일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열정을 쏟던 일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대표님에게도 있었나요? 그럴 때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시 추스르고 다잡으셨나요?

스파크형인 저도 예전에는 불타다가 식어버리는
저 자신을 탓하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인간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존재가 아닐까 하고요. 좋았다가 식어버리는 것도,
끈기가 없는 것도, 게으름 피우는 것도, 본래 그렇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동서양의 고전도, 최근의
자기계발서도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끓는 마음이 아니라 결국 의지로 끌고
가야 하는 일 같았어요.

문제는, 의지가 약한 것 또한 본성인지라 나아갈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나
협업자들과의 약속이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약속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어떤 일을 같이 하자’라든가 ‘언제까지 이걸
보내겠다’ 같은 거예요. 이런 크고 작은 약속이 제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저를 끌어주기도 하고
등 떠밀어주기도 해요.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의 키워드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서사가 담긴 단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 현재 서 있는 길 — 앞으로 걸어갈 길.
연속성과 지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요.
우리의 일과 관계도 비슷하고요. 대표님에게 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점과 선’처럼 내가 찍은 수많은
점이 연결되는 것이요. 때문에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돌아보니, 그런 길을
걸어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사방으로 찍힌
점들이 연결되는 것이기에 일직선 도로도 아닐 테고,
꼭 앞으로 뻗어 나가야만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무엇보다 각자 다른 모양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날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도 일단은
걸어보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itself. And if there come more moments like
that, wouldn’t we grow more as an editor and as
a natural person?

It is such a great action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consistently put effort into the work
we are doing. Because we are putting
physical and mental labor into the work. As
a person who burns up in an instant and cools
down in an instant, I feel sacred about this
consistency. Have you ever had times when
you felt bored about something that used
to seem interesting or you felt burdensome
about something you poured your passions
into? How did you control and get your mind
and body back again during those times?

Just like a spark type, I used to blame myself
for just burning up and then cooling down. But in
these days, there is a little change in my thoughts.
I think that we humans are the existence
designed such like that way from the beginning.
To be good but cool off, not to have persistence,
to be lazy—aren’t these because that’s how they
were designed? That’s why the classics of the
East and the West, and the recent books for self-
improvement, have no choice but to say the same
words. After thinking that way, I felt like I should
do it with a will, not with a burning-up mind.

The problem is that the fact that we have weak
will is part of our nature, so we need the power
to move forward. However, the promises I made
to colleagues and collaborators who worked
with me gave me the power to go forward step
by step. A promise was not that great, but it was
like ‘Let’s do some work together.’ or ‘I will send
you this until a certain time’. For me to keep
making these big and small promises, they pull
me into it and push me through it.

The keyword of the 2023 Paju Editor School was
‘Way’. We think that a ‘way’ is just like a word
that contains a narrative. The way we’ve come
so far — The way we are currently on — The way
we will go through. It has both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ur works and relationships are
similar. What does a ‘Way’ mean to you?

Like ‘dots and lines’ mentioned by Steve
Jobs, it is the connection of numerous
dots made by me. So I think it’s natural that
I can’t see the future right now. Looking back,
I found out that I walked through the way. Since
it’s a connection of dots printed on all sides,
it probably won’t be like a straight road, and it
probably doesn’t need to stretch forward. Above
all, I think we’re standing in each differently
shaped way. Yes..., I don’t have a clear vision of
the future, but I would like to say this, sharing
my commitment to take one step first.

강연자 인터뷰 민찬기 그림책공작소 대표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강연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일 이야기를 두루 살피주셨어요. 파주 에디터스쿨과 함께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내심 떨렸지만 되게 신났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주 에디터스쿨은 유의미한 책을 만들었거나 많이 판매했거나 앞서 제시한, 이른바 선수 중의 선수들만이 누리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처음에 연락 받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올해의 주제가 한 획을 그은 ‘길을 낸 에디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길을 내는 에디터’여서 담담한 척 동참했지요.

강연을 준비하는 동안, 9년 차 1인 출판사 대표로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성찰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 그림책을 만드느냐고 누가 물으면,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자조적으로 말하곤 했는데 이제 달리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는 책 만드는 내 일을 사랑한다고!

‘나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 귀감이 되는 길을 만든다고 강연을 해달라고 하다니...’ 강연 섭외 연락에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연을 선택 수락해주신 것은 어떤 다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싶으셨나요?

녹록지 않은 출판 동네, 1인 출판사를 운영한 9년의 시간을 공개함으로써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강연자분들은 책을 만들면서 느끼는 한계와 불안감 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참고로, 선택 강연을 수락한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책을 만들면서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어떤 능력보다 중요하죠. 부담이 컸지만 파주 에디터스쿨 강연을 수락한 첫 번째 이유는 섭외 메일의 진정성과 전화 통화를 할 때 느껴진 담당자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명료했고, 친절하지만 단호했던!

모두들 에베레스트를 향해 갈 때 나만의 목적지를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기에 ‘바다로 가시겠구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하) 단순히 반대 지점이 아닌, 방향도 목적지도 전혀 다른 곳이었는데 말이죠. 우주 아니면

INTERVIEW WITH LECTURER CHAN-KI MIN PUBLISHING EDITOR OF PICTUREBOOK GONGJACKSO

The 2023 Paju Editor School ended successfully. You carefully looked into our work stories for a long time through the lecture and networking system. We are wondering about your impressions from your experience with Paju Editor School.

I was a little bit nervous but very excited. I was very nervous when I was contacted because I was aware that Paju Editor School is something that can only be enjoyed by people who have published or sold a lot of books, or as mentioned above, real experts among so-called experts. Fortunately, this year's theme wasn't the groundbreaking 'The Editors Who Created a Way', but 'The Editors Who Create a Way', which is still ongoing, so I participated in it while pretending to be calm.

While preparing for my lecture, I could reflect on what I was concerned about and where I was heading as the CEO of a one-man publishing company of 9 years, and I was grateful for this. When someone asks me why I publish a picture book, I used to tell self-deprecatingly that this work is all I can do, but I think I will give a different answer from now on. I love my job publishing books!

'I was just working, but I was asked to give a lecture for creating a way which can be a good example for someone...' You might have felt burdened by the invitation contact to be a lecturer. Nevertheless, you willingly accepted to give a lecture, and it seems that you had some resolution for it. What kind of concerns and thoughts did you want to share?

I wanted to encourage beginners who just started by telling them about the difficult publishing industry and the nine years I spent running a one-man publishing company. In addition, I was also wondering how other lecturers overcame the limitations or anxiety they felt while publishing their books.

Now, I say one thing, I did not willingly accept to give the lecture. While making the book for a long time, I realized how important the attitude is when facing works and people. Sometimes,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ability. Although it gave me a lot of pressure, the first reason why I accepted to give a lecture for the Paju Editor School is that I could feel the sincerity in the attitude of the person in charge of inviting lecturers through his calls

이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계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표님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궁리하게 하는 그림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요?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하고 새로운 주인공에 공감하고 새로운 전개에 몰입하는 이유는 아마 새로운 간접 경험을 하고 싶어서겠죠. 저는 메시지, 구성, 아티클, 분량, 디자인, 물성 등등 기존에 느낄 수 없던 새로움, 나아가 생경함까지 느껴지는 그림책을 만들어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그림책을 많이 경험하고 깊게 향유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게 그림책은 정답 없는 문제이자 갈 수 없는 유토피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답을 찾고 있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일 대표님이 한 권의 그림책이라면 어떤 모습의 책일까요?

단언컨대 저는 글자 없는 그림책일 겁니다. (웃음) 이미지로 모든 걸 전달하는 글자 없는 그림책은 이미지 내러티브가 충만하고 메시지 또한 명료하지만 독자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글 없는 그림책은 어디까지나 독자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몇 장 넘기다 글이 없네, 이야기가 없네, 하며 덮으면 그림만 있는 의미 없는 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림책을 만들 때마다 단어와 문장, 글의 구조, 그림의 구도와 비율, 글자 크기, 잉크 값, 종이 두께 등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지만, 단순히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씁쓸하죠. 오래 보아야 예쁜 건 비단 풀꽃만이 아닙니다. 책과 그림책,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러합니다.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의 키워드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서사가 담긴 단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 현재 서 있는 길 — 앞으로 걸어갈 길. 연속성과 지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요. 우리의 일과 관계도 비슷하고요. 대표님에게 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길이란 내가 가는 곳입니다. 시쳇말로 자신감 쩌다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 지금 이게 길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니 지금 지나는 곳이 길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답변인 셈입니다.

흔히 우리는 길을 인생에 빗대곤 하는데, 한 치 앞을

and emails. He was simple but clear and he was kind but firm.

When everyone said they were heading to Everest, you said you thought of your destination and I thought, “You will go to the sea!” but that was not actually. (Haha) It was simply a point on the opposite side, but a place with a completely different direction and destination. You mentioned that you want to go to the space or the world where it is unimaginable in this reality. Could you please tell us more specifically about the world? And what is the attractive point of picture books that makes you constantly explore and think about them?

Then why do we read books? The reason why we are enthusiastic about new stories, sympathize with new protagonists, and are immersed in new stories is probably because we want to have new but indirect experiences. I would like to create and present a picture book that makes people feel the newness and even the vividness of the message, composition, article, volume, design, and physical properties that they could not feel before. This is because I hope that more people than now will be able to experience picture books and they deeply enjoy them. For me, picture books are just like a problem without any answer and a utopia that I can't go to. So I am still looking for answers, and I am heading somewhere.

We want to try having a fun imagination! If you were described as a picture book, what would it look like?

I am sure that I am a wordless picture book. (Haha) Picture books without letters, which convey everything through images, are full of image narratives and have clear messages, but readers don't like them. For wordless picture books, readers can realize their value when they closely look at the picture books and give some meaning to them. When they just go through a few chapters and say that this book has no letters, no story, and then they close the book, it becomes a meaningless book with only pictures.

Whenever I create a picture book, I worry about countless things such as words and sentences, structure of texts, composition and ratio of pictures, font size, ink values, and paper thickness. However, when it is regarded as nothing but a book for children to read, it becomes just like that. Sometimes, it is bitter. Wildflowers are not the only things that look beautiful when looking at them for a long time. Books, picture books, all of us who live every

모르는 게 인생이라니 여러분의 길 또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갈 데까지 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day also look beautiful when looking for a long time.

The keyword of the 2023 Paju Editor School was 'Way'. We think that a 'way' is just like a word that contains a narrative. The way we've come so far — The way we are currently on — The way we will go through. It has both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ur works and relationships are similar. What does a 'Way' mean to you?

A 'Way' is the one I go through. Some might misunderstand that I am just excessively confident, but to be honest, I have no idea where this way is going, and I am even not sure whether this is a way or not. Nevertheless, we are heading to somewhere now, so I can give such an answer, sincerely hoping that this is the right way. We often compare a way to life, but as nobody knows what will come next in life, your way will not be different. We can never know the end of life, but we go as far as we can. Do our best and go as far as we can!

강연자 인터뷰 미시마 쿠니히로 출판사 미시마샤 대표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강연을 통해 우리의 일 이야기를 두루 살피주셨어요. 파주 에디터스쿨과 함께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멋진 기회였습니다. 저희 출판 활동과 관련해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에선 당연시되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그대로 말해도 통할까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원래 ‘반품(返品)’이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하나하나 생각함으로써 저희의 상식을 의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파주 에디터스쿨의 운영과 스태프분들의 일, 장소, 환경, 모든 면에서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 귀감이 되는 길을 만든다고 강연을 해달라고 하다니...’ 강연 섭외 연락에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연을 선뜻 수락해주신 것은 어떤 다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싶으셨나요?

저희의 활동, 특히 그것이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국에 계신 출판 관계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이책은 굉장하며 아직도 대단한 힘이 있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분명 한국분들에게도 그 생각은 통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훌륭한 동시통역사분들 덕분에 ‘통했다!’라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체험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위해 미시마샤의 모든 인원이 투입된다고 하면서 그 모습을 축구로 비유하셨죠.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 모두 공 하나를 위해 뛴다!” 그런데 역시 골키퍼는 골대를 지켜야 한다면 일본으로 돌아가면 철저히 골대를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웃음) 그렇다면 골키퍼는 아무래도 미시마 대표님이 될까요? 빠르게 변화하고 어제와 오늘의 회로애락이 뒤섞이는 출판업계에서 미시마 대표님과 미시마샤는 무엇을 지킬까요?

저는 골키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역시 득점을 결정짓는 역할이라서요. 다만 수비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수비를 할 수 있게끔 유의하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아니지만 점수를 낼 수는 없으니까요.

INTERVIEW WITH LECTURER KUNIHRO MISHIMA CEO OF MISHIMASHA CO., LTD.

The 2023 Paju Editor School ended successfully. You carefully looked into our work stories through lectures held both online and offline. We are wondering about your impressions from your experience with Paju Editor School.

It was such an amazing opportunity for me. We had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our publishing activities with people overseas, and we could look back on our activities once again through this opportunity. During this process, I thought about whether they would understand it if I said it as it is, even though it is taken for granted in our country. It became such a good opportunity to question our common knowledge by thinking about one question such as ‘Is there usually a ‘Return’?’ one by one. I was so impressed by the operation, the work done by its staff, the place, the environment, and any other sides of the Paju Editor School. I really appreciate it.

‘I was just working, but I was asked to give a lecture for creating a way which can be a good example for someone...’ You might have felt burdened by the invitation contact to be a lecturer. Nevertheless, you willingly accepted to give a lecture, and it seems that you had some resolution for it, what concerns and thoughts did you want to share?

I thought this opportunity could be better than that, since we could share with those involved in publishing in Korea about our activities, especially about what we are thinking about. I think paper books are still amazing and they have a strong power, and I also believe that this thought will be on the same page for Korean. Thanks to excellent simultaneous interpreters, I could feel that they are also on the same page with me. It was the best experience.

You said that every worker at Mishimasha was put in for a book, and you compared it to football. “All Goalkeepers, defenders, and attackers should play for a ball!” However, you also said that a goalkeeper must guard the goalpost and that when you return to Japan, you will try to guard the goalpost thoroughly. (Haha) If so, will the goalkeeper be you, CEO Mishima? What are you two, CEO Mishima, and Mishimasha trying to protect in a rapidly changing publishing industry where yesterday’s and today’s joys and sadness are



골키퍼로서
지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나지 않게 하고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출판업계에서
미시마사와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책은 단순히
소비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mixed?

I don't think I am a goalkeeper. At least, I have never thought about myself like that. This is because my role is to determine the score. However, defense is also important, so I keep that in mind to be able to defend myself. I am not a goalkeeper, but I can't get scores. What you must protect as a goalkeeper is to avoid financial losses and not lose trust. What Mishimasha and I want to protect in the publishing industry is conveying the fact that books are something that remain for a much longer time rather than are simply consumed through book-making activities.

Among the passages from Today's Life 2 read in the lecture, there was a line that said, "With the feeling from a beautiful sunset, I stop by a convenience store and buy a Häagen-Dazs and go home," and we liked the line very much. (I am sorry for not remembering the exact sentence). The comfort from the daily lives. The very valuable moment because of it. Is there any special food that comforts you who gives the whole heart for today and will pour more affection tomorrow?

For me, it is Miso soup (Soybean paste soup). And with bread, I have every morning (sometimes white rice). Every night, I fall asleep thinking 'I am looking forward to having breakfast tomorrow'. Then I have my freshly baked warm bread with miso soup. Every morning time, I make coffee with coffee beans grinded by myself. At the moment when they flow into my stomach passing through my mouth and throat, I feel my happiness special.

The keyword of the 2023 Paju Editor School was 'Way'. We think that a 'way' is just like a word that contains a narrative. The way we've come so far — The way we are currently on — The way we will go through. It has both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ur works and relationships are similar. Mr. Mishima, what does a 'Way' mean to you?

It is such a difficult question! (Haha) What comes to mind from the word "A way" is a poem quoted by a professional wrestler named Inoki Antonio at his retirement ceremony...

Don't be afraid of
What will happen
If you go through this way
When you are afraid of it
There is no way
That one step will be your way
And another step will be your way
Do not hesitate and just go through it

그 한 발이 길이 된다
망설이지 말고 가라
가면 알 수 있으리

미시마사의 책 만들기나 활동의 바탕에는 이러한 '길'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You will find out when you go

This spirit of 'A Way' flows through Mishimasha's book-making works and its activities.

강연에서 읽어주신 《오늘의 인생2(今日の人生2)》의 구절 가운데 “저녁에 지는 노을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마음에 편의점에 들러 하겐다즈 하나 사서 집에 들어가는”(정확한 문장을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이라는 대목이 무척 좋았습니다. 일상의 편안함,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 순간이요. 미시마 대표님에게는 진심을 다한 오늘을 위로하고, 더 큰 애정을 쏟을 내일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 있나요?

미소시루(된장국)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먹는 빵(가끔 백미). 밤이면 '내일 아침이 기대된다~' 생각하며 잠듭니다. 따끈따끈하게 갓 구운 식빵을 된장국이랑 먹습니다. 아침이면 제 손으로 원두를 갈아 제가 직접 내리는 커피와 함께. 그것들이 입에서 목을 거쳐 위로 흘러가는 순간에 맛보는 행복은 각별합니다.

2023 파주 에디터스쿨의 키워드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서사가 담긴 단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 현재 서 있는 길 — 앞으로 걸어갈 길. 연속성과 지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요. 우리의 일과 관계도 비슷하고요. 미시마 대표님에게 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웃음) 길이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것은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프로레슬러가 은퇴 세리머니에서 인용한 시인데요...

이 길로 가면
어찌 되겠는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길은 없다
그 한 발이 길이 되고



제출용

Paju

∞ 양선화 | 지학사 단행본팀_북트리거 과장
: 나의 전문성

지금까지의.
앞으로는?

Editor
School

- 지금까지 - 나 특이이들, 책으로 만들
속 있어, 목숨지 않아.
- 이젠으로 - 책하고 항상함 함께하는 것이.
나의 미소(미소가지),

2023

주후 파주 에디터스쿨과 출판도기문화재단 홍보 콘텐츠로 활용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콘텐츠 활용 및 배포에 동의합니다.

2023년 8월 9일

참여자 생함: 이정민 (가명)

제출용

Paju

∞ 양선화 | 지학사 단행본팀_북트리거 과장
: 나의 전문성

지금까지의. 파스트 러너 (다양한 기술을 발리익힌다)
앞으로는?

Editor
School

- 무언가 더 낫게 만드는 ~~사람~~ 사람.
- 더 흥미롭고 재밌게 만드는 사람.
- 무슨일이든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 이상하고 멋진 구석을 찾아내는 사람

2023

주후 파주 에디터스쿨과 출판도기문화재단 홍보 콘텐츠로 활용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콘텐츠 활용 및 배포에 동의합니다.

2023년 8월 9일

참여자 생함: 김민희 (가명)

제출용

Paju

∞ 양선화 | 지학사 단행본팀_북트리거 과장
: 나의 전문성

지금까지의.
앞으로는?

Editor
School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만드는
그림책 편집자 ♡

2023

주후 파주 에디터스쿨과 출판도시문화재단 홍보 콘텐츠로 활용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콘텐츠 활용 및 배포에 동의합니다.

2023년 8 월 9 일

참여자 생함 : 이서영 (인)

제출용

Paju

∞ 윤세미 | 다산복스 엔터테인먼트 본부 IP제품팀 팀장
: 가능성

지금까지의.
앞으로는?

Editor
School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
내가 키우는 고양이부터
준거 보는 SNS 계정의 글들과
우리집 장식함에 있는 파충류들이
한 권의 책으로 생신할 수 있는 가능성.

그저 세련되고 예쁜 것을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누군가에게 일러는 기쁨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마케터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가장 먼저 읽는 게 행복인 편집자가
엄청난 가뭄자로 생광할 수 있는 가능성.

2023

주후 파주 에디터스쿨과 출판도시문화재단 홍보 콘텐츠로 활용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콘텐츠 활용 및 배포에 동의합니다.

2023년 8 월 23 일

참여자 생함 : 윤세미 (인)

제출용

Paju

∞ 김보희 | 터널네프레스 대표

: 관찰

지금까지의.

앞으로는?

Editor
School

- 산만함 → 프로 다이어리, "그날의 관찰주제를 전하고 집을 나서보자"
예) 우산을 관찰한다면, 우우우 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우 우우우 우우우우.
- 좋아하는 작가에게, 꾸준히 팬레터를 보낸다는 마음으로
메야를 쓰러볼 것.
- 협업의 방식
협업자들끼리 약속 "내가 함께 읽는 책에는 감정을 찾아.
이 책이 읽을 사람에게서 감동할 수 있도록 내가 지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 본인이 원하는 감동이나 감동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찾아서, 그 사람을 프롤과일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

후후 파주 에디터스쿨과 출판도기문화재단 홍보 콘텐츠로 활용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콘텐츠 활용 및 배포에 동의합니다.

2023년 8 월 23 일

참여자 성명 : 박지현 (가명)

제출용

Paju

∞ 사공영 | 유유출판사 편집장

: 확장

지금까지의.

앞으로는?

Editor
School

예비 편집자로서 필요했던 이야기와 전혀 몰랐던
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예비 출판인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고 (강연도요!)

특히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더욱 유익했습니다.

2023

후후 파주 에디터스쿨과 출판도기문화재단 홍보 콘텐츠로 활용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콘텐츠 활용 및 배포에 동의합니다.

2023년 9 월 6 일

참여자 성명 : 김민정 김민정

제출용

Paju

∞ 사공영 | 유유출판사 편집장
: 확장

지금까지의.
앞으로는?

Editor School

구독서비스와 뉴스레터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확장하고자
조금씩 말하듯 본능이 인생각이었어요.
과정의 디테일을 나누려고 한 점이
좋습니다.

2023

후후 파주 에디터스쿨과 출판도기문화재단 홍보 콘텐츠로 활용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콘텐츠 활용 및 배포에 동의합니다.

2023년 9 월 6 일

참여자 성함 :

김유서 (가명)

제출용

Paju

∞ 유지원 | 글문화연구소 소장
: 실험과 모색

지금까지의.
앞으로는?

Editor School

그동안 ^{작은} 실험과 모색도 많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직접 실험하고 재미있는 글을 모색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2023

후후 파주 에디터스쿨과 출판도기문화재단 홍보 콘텐츠로 활용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콘텐츠 활용 및 배포에 동의합니다.

2023년 9 월 20 일

참여자 성함 : 김지영 (가명)

Good book!

002판사 제1회 판심회 가29 판심회

$$\frac{1}{2} \mid 02 \quad \frac{4}{1} \quad \frac{2}{1}$$

이번 기회에 많은 이야기들 $\frac{20}{22}$ 정도 있습니다.

저음인 표음자인 방법을 택한것이

가나수업내용으로 10월 13일 10월 14일

$$\frac{2}{2} \frac{10}{2} \text{ 같다}$$

The next plan B.

지 선 지

· 기획 관리는 법?

2년 관광할 주제를 정하고 집을 나서라!

(2월 10일 - 2월 12일 9월 2일 2월 2일)

다) 비인간성 : 무심. 레인부츠.

→ 나이때. 새끼. 리지...

⇒ 어떤 직영 인리 상충함.

고양
관청
호는 다인
각

· 죽었다는 것?

「고난중의 기쁜 날」 유유

(SFUS (E/A/24)
+

• $\Gamma_{12} \Gamma_{24} \{2>3\}?$

ex) 2m/210의 8%

32/11 21/11/21

ॐ ४२०२ ७६२१००

* 리하의 정수
 : 0.7 = 70%
 * 리하의 정수
 * 리하의 정수...

한글. 반드시 두꺼비 # 를 넣어서.

기복주의 그림자의 독자들 (여인이, 양육자, 고백적가제양성
etc)
의 사랑 & 그 의미 독자들의 삶 안에 그려보기.

새로운 새로 → 가늠이 안 되는 다음 줄까지 etc
충분히 but 작수 있는 것이
reference detail까지 생각해 보자.

책의 재미를 느껴본 적 없는 예비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

↳ 다른 건 접해본 적 있는데 "소문명"은 강연으로 처음 접해서 새로웠다.

즉자로서 다른 매개체와 책의 결함이 궁극적이다. 인젠가 더현대 출판사에서

출판사의 판권이 진행되는 날도 2지 ~~출판~~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 차이는 애기들과 갓 뉘의 치명함은 느낄 수 있다.

네비 독자는 아니지만 읽는 것 좋아 하는 사람으로서 책의 세계가 더 확장되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나는 나를 사랑하는 행복을 몰랐지만

아름다운 내일 좀 더 넓은 세계를 향유하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은 사랑 하고 싶다.

의적 이미지: 점진적 ↑
내적 콘텐츠: 내용 위주 ↑

$$\frac{1}{6} \frac{1}{2} \frac{1}{2} \frac{1}{2} \frac{1}{2} \frac{1}{2}$$

자극 스트레스 이행

한글장

→ 수단 / 방법 / 23

지재
아이템
신력
1997년

특정: 연속 함수, 시작점

~~Handwritten scribbles~~

(~~20~~ 24/10)

[illegible]

Paju
School
Editor
2023